

---

# 2020년 제30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7. 17. ~ 7. 2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7. 17.	시청률	0.024

### 【총 평】

‘단박톡’은 북한이 6월에 취한 대남군사행동 보류 이후의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전망을 짚어보았고, ‘북마크TV’는 “北, 식량난 해결에 신속 추사 강조”를 다뤘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도발 담화와 6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고르기가 주는 의미 등 북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고,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북미간의 대화 재개와 남북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북마크 TV’에서 소개한 멀티플레이 식량 생산 뉴스는 북한의 식량난과 코로나19 경제난을 잘 보여준 방송이었다.

### 【구성 및 내용】

‘단박톡’은 군사행동 보류라는 명목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나온 코로나 관련 내용들도 소개했다. ‘북마크 TV’는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멀티플레이 추산 방법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언급하고 대남 군사행동 보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김정은·김여정 두 사람의 관계와 역할을 추측해보았다. 두 사람의 다른 대남 행보가 실은 미리 짜 둔 계획일 것이라는 점에 공감되었다.

김정은 주재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와 북한의 코로나19 사태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김정은의 역할 변화를 논리적으로 예측했다. 평양종합병원 준공 관련 소식은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했고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예상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과제들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 예로 보건의료협약에 관해 언급한 점이 참신했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예로 설명했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이산가족상봉’은 다시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평화의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는 경색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7일 방한한 스티브 비건은 미국과의 남한의 동맹을 강조한 굳건한 믿음위에 북미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북한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마크 TV’는 “북한 식량난 해결에 신속 추사 강조”한 이유를 코로나19 식량난과 연결하여 소개하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식량난 해결 방안으로 마장리 추산촌 현장을 보여주면서 썩 추사에 력셔리한 정자, 식량난 해결 위해 북한의 신품종 자모종 비육돼지, 번식력 최고인 토끼 사육, 북한의 식량난 해결 열쇠인 165톤의 멀티플레이 추사와 자급자족 추사, 논에서도 멀티 식량을 생산 등 일거양득 생산 현장을 자세하게 담았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7. 17.	시청률	0.000

### 【총 평】

‘72번째 제헌절,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역할은?’은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김원기 前국회의장을 초대해 개헌 과정과 현재의 정치 이슈에 대한 고언을 들었다. 특히,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진단한 기획이 제헌절 의미를 더한 가운데 김원기 전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부제로 헌법과 정치, 개헌의 필요성, 21대 국회의 역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의 모습을 세부 주제로 다뤄보았다. 전반적으로 국회의장의 실제 국회 의정활동을 상기시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국회 및 개헌 등의 이야기를 가볍게 잘 풀어주었다.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로 개원초부터 진통을 겪은 21대 국회 상황에서 전직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와 함께 여야의 바람직한 자세를 일깨운 해결책이 돋보였고,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정치 문제,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의 불가피성, 정치권의 잦은 위헌 논란의 부적절성, 제헌절 공휴일 지정 이전에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 【구성 및 내용】

제헌절의 의미 그 자체보다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대화와 타협이 왜 중요한지에 주제를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현재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가 많았다. 제헌절의 의미, 최근 국회 동향에 대한 분석, 역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시기의 입법 경험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국회의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했다.

개헌의 출발점은 정치개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의 관행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였다.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범여권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제헌절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의 근본 기틀을 정한 것이 헌법이라고 할 때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법률적 규정이다. ‘헌법과 정치 이야기’에서는 제헌절이 가지는 의미와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정치권의 잦은 위헌논란과 헌법 개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살펴보았다. ‘개헌의 필요성’에서는 2004년 개헌론 제기 배경과 함께 헌 시점에서의 개헌 필요성과 방향을 짚어보았다. ‘21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는 21대 총선에서의 국민들이 거대 여당을 만든 이유와 함께 21대 국회의 시작과 현 시점에서의 여당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였다. ‘국회,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에서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권의 역할을 짚어보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7. 19.	시청률	0.036

### 【총 평】

정부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유네스코에 보낸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요구 관련 한 내용으로 “일본은 왜 ‘군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를 방송하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거짓 약속 과정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가 왜 한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일본은 왜 강제동원과 인권침해를 부정하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독일과 오만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 【구성 및 내용】

“일본은 왜 ‘군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는 강제노역과 수탈의 현장이었던 일본의 나가사키 군함도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본의 만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일본의 뻔뻔함과 과감성을 보여준 방송이었다. 지옥섬, 감옥섬이라 불리는 군함도는 중일전쟁 당시 조선인을 끌어다 군함도 해저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강제노역을 시키며 민족말살을 펼쳤던 곳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중 조선인을 강제노역 시킨 곳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015년 7월 5일, 독일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최종 등재 순서에 앞서 스스로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을 밝혔고, 이와 관련된 안내센터 설치를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5년 후, 2020년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살펴보면 일본은 등재 조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일본의 가증스러운 태도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여 공감하게 만들었다.

특히, 군함도를 비롯해 지난 2015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대부분이 강제징용과 차별, 착취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당시 약속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일본의 뻔뻔함과 몰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우리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한일청구권 협정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조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 및 징용에 대한 반성과 희생자를 기리는 등재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재유산 취소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 민간친선외교단체 반크는 일본의 역사적 왜곡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유네스코에 지속적으로 일본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역사바로잡기를 유네스코에 전달하고 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and 일본의 잘못된 역사왜곡에 대해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 특히, 마무리부분에서 ‘역사는 입맛에 맞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방송 내용을 압축하며 시청자들 가슴에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7. 19.	시청률	0.103

### 【총 평】

‘일편단심 산나물부부’편에서는 산나물 하나로 농부, 식당 셰프, 그림동화작가 등 3가지 직업을 거뜬히 해내는 산나물 홍보대사 ‘억척 아줌마’를 다큐형식으로 구성했다. 산나물을 6만여 평의 산지에서 직접 재배하고(1차산업), 산나물을 가공 판매하거나 재료로 활용해 식당을 운영(2차 가공산업, 3차 서비스 산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소재로 한 그림동화 출간 등 6차 산업을 집중 부각해 우리 농업의 미래 모델을 제시한 기획이 돋보였다. 우리땅에서 재배된 산나물을 매개로 건강식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림동화까지 내놓는 이색적인 소재와 스토리텔링 구성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에 빠진 농업의 활로를 제공하고 귀농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기획성과 작품성,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났다. 특히, 산나물과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꾸미지 않은 말과 말 사이에서 진솔하고 풋풋한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일편단심 산나물 부부’는 충주시 수안보면의 귀농 10년차 산나물 애찬론자인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귀농 이후 산나물에 빠진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산나물을 기반으로 한 산나물 김밥집 운영과 그림동화책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의 소소한 생활도 눈길을 끌었다.

귀농하고 일반 농사는 힘들지만 산나물은 관리만 잘 해주면 알아서 잘 자라주어 좋다고 한다. 그렇지만 게으를 수 없는 것은 6만여 평의 농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나물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곳 농장은 서늘한 산골마을로 해발도 적당하고 토질도 비옥하며 경사면에 배수도 잘되어 산나물 농사가 적합하다고 한다.

충주 시내의 아파트 상가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양념에 각종 산나물 등 건강한 재료를 넣은 김밥으로 좋은 산나물을 알리고 싶어 산나물 김밥을 시작했다.

여성 주도의 ‘부창부수(婦唱夫隨)’의 이색적인 스토리가 흡인력을 높였고 새로운 영농에 대한 집념, 농업에 대한 믿음과 철학이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애했듯 산나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소재로 동화를 써서 책을 만드는 모습에서 이들 부부가 발견한 귀농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부인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산나물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보다 산나물이 더 좋았다”, “나물을 찬물로 기절시킨다”, “내가 맛있게 만들면 손님도 좋아하게 된다”, “거북이 같이 느긋한 마음으로” 등 귀농 10년차 주부의 거침없는 입담과 문학적 표현, 진솔한 농사철학이 공감을 불렀다. 또한, 마당에 있는 500년 된 옹달샘과 그 물로 빚어낸 된장과 간장은 산나물이 풍기는 향기에 더해 이야기에 깊은 맛을 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7. 21.	시청률	0.003

## 【총 평】

최근 국민리포트에 한층 깊이가 생겨 시청하고 나면 뭔가 여운이 남는다. 전문 기자들이 취재해온 내용보다 훨씬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공감대가 훨씬 넓다. 초반에는 주로 정책 소개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소개하기에 바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의미가 있는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유익하다.

특히, “농촌 도시 상생…일손 돕고 농사도 배우고”는 농가 어려움에 대처한 지자체 고민이 잘 드러났고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세 여전…교민들에게 한국산 마스크 공급”은 에콰도르 키토 지역 상황을 전하면서 교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마스크 공급에 힘쓰는 한인회와 국내 마스크 생산기업의 연대를 잘 담아냈다.

## 【구성 및 내용】

- 농촌 도시 상생…일손 돕고 농사도 배우고  
파주 농촌 체험마을에서 진행중인 농업 일자리 체험교육 현장을 취재했는데, 귀농을 준비중인 시청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 없는 농가들에게 좋은 기회였고 1석 2조의 의미가 있었다. 농장에서 체험하는 내용과 aT센터의 체험교육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언급되어 유익했다.
-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세 여전…교민들에게 한국산 마스크 공급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다가 잠잠해졌나 싶으면 확산하는 시기에 해외의 심각한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특히, 현지 한인회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한인들을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단결하는 국민정서를 부각시켜 뿌듯했다.
- 버려진 나무가 친환경 시설물로 재탄생  
수원시 숲 자원화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폐목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사업을 소개했다. 폐목을 업사이클링하는 현장을 취재했는데 목공가공소에서 직접 제작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 그 결과물도 전시가 되어 볼거리를 더했다. 특히, 쓸모없어 버려진 폐목을 재료로 한 업사이클링 사업이라는 데 한층 더 의의가 있었다.
- '부산 미래유산' 책방 골목…재개발로 '취청'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진 부산의 보수동 책방 골목을 소개했다. 특히, 책방의 역사부터 의미까지 차례로 소개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극대화 시켰다. 시민들의 아쉬운 감정도 인터뷰로 전하면서 책방 골목을 지키자는 메시지가 핵심이었고, 가장 목적성이 뚜렷한 취재였다. 차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가치 유지와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보수동 책방 상인들과 고객 그리고 행정당국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 준 소식이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7. 21.	시청률	0.006

## 【총 평】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고 국정과제를 점검한 기획이 돋보였다. 문대통령의 연설 주요 메시지를 정치권 협치, 한국판 뉴딜, 민생경제 입법, 남북관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상세히 소개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 7.10 부동산 대책 방향 점검과 보완책을 살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발표로 논란을 종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대통령의 개원 연설 메시지와 관련, 점검과정에서 패널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점은 해결책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S&News>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빛나는 숨은 주역인 자원봉사자와 수어통역사의 활약상을 소개해 공감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문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의 의미와 내용을 살폈는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개원연설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생각할 때 충분히 다룬만한 소재였고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한다”는 뉴스를 발 빠르게 다룬 것도 좋았다.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100년 설계는 시대의 전환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며, 코로나 19 펜더믹 등 어려운 상황에서 K-방역의 성공은 한국이 새로운 국제관계에서 모범국가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와 관련 위기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이 이뤄진다.

부동산 정책의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관련법은 폐기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발표로 주택공급지로서의 그린벨트 논란을 종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설명하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예로 들면서 인프라에 너무 치중되어있는 것은 문제고 교육 방법의 혁신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다음 정부가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있었다.

<S&News>는 코로나19의 숨은 주역인 ‘자원봉사자’와 코로나 금손으로 불리는 ‘수어 통역사’의 활약상을 소개해 국민들의 감사 마음을 표현해 공감도와 흡인력을 이끌었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디지털 일자리를 2천 개를 창출하기로 했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7. 23.	시청률	0.007

### 【총 평】

고온 지속과 장마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여름철 사고를 소개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 조치와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긴급점검, 폭염·풍수해 사고”를 방송했다. 특히, 폭염과 집중 호우 피해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시기상으로 적절한 내용이었고 공교롭게도 부산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공감의 많이 되었다. 최근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름철에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를 점검하고 예방책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기획이었다.

### 【구성 및 내용】

해마다 장마와 폭염시기를 지나려면 태풍으로 인한 막바지 피해가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노선이 끊기고 건물이 침수하는 사례 등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긴급점검, 폭염·풍수해 사고”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사항들을 전달하였다.

여름나기는 가축과 농작물을 비롯해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시설에서도 안전대비와 각종 자연 재해에 대비를 해야 한다. 폭염과 풍수해로 인해 적잖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온열질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의 폭염 일수를 언급하며 폭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했다. 실제로 온열 질환을 겪은 사례자들이 등장하여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고 또 전문의도 등장해서 온열 질환의 위험성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경각심을 주었다. 여기에 각종 그래프도 준비가 되어 언제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근거를 들어 주어 신빙성도 있었다. 온열 질환의 피해 사례를 충분히 언급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로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농가나 축사, 도시내 폭염 피해 실태를 잘 지적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수 시설이나 하우스 내 스프링클러나 축사 내 에어컨, 터미널의 냉온 의자와 그늘막 등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들을 소개했다. 성남시청 자연재해팀과 동행 취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예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다. 여러 가지 장비도 소개되었고 우려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상세히 언급되었다. 실제로 비상시 지원을 나간 영상도 준비가 되어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강풍속에서 옥외 간판을 고정하는 작업이 기억에 남았다. 실제로 폭우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강풍에 대한 위험성은 간과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 위험 요소를 언급해준 점이 좋았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태풍이 다가올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몰이해서 시청할 수 있었다.